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형 시책 앞당긴다

경기 부양 방안 분야별 신속 집행
서민경제 실질적 도움 지원책 논의
지역상품권 1000억원대 지속 발행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등 앞장

해남군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국가적 비상상황에 따른 내수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군정의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보고회를 갖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안을 분야별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명 군수는 "올해 내내 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과정을 거치며 송년특수가 사라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곧바로 추진에 돌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시책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소·읍면별로 발굴된 69건의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논의하고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 완화·경감·면제·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내년 중점 추진하게 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외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시행해 연말연시 경제활성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한다.

군은 부서·읍면별로 지역상이 이용하기,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 전통시

장 장보기, 지역 맛집·명소 SNS 홍보하기 등에 나설 예정으로, 체감형 경제활동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관내 민·관·언이 함께하는 민생회복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유관기관, 출향향우까지 함께하는 전 군민 캠페인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협력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들도 조기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1000억원대 지속 발행과 할인판매 확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구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노인, 중장년, 장애인 일자리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먹거리 바꾸처와

에너지 요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농수축산 분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에 대한 1월 조기집행과 함께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중소농 농자재 반값지원사업,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이 펼쳐진다.

내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대상액의 65%까지 높여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국내외 여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짐에 따라 조기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에 강한 해남'이라는 남다른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만큼 이번 위기 또한 군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시, 2026년 국고 신규사업 발굴 32건 5조3076억원 규모

목포시가 지난 24일 박홍률 시장 주재로 국비 확보의 선제 대응을 위해 '2026년 국고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보고회를 통해 주요 시책 사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고사업 32건 총사업비 5조 3076억원에 대한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발굴사업은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고하도 해상 데크 진입로 모노레일 설치사업 △노후 삽진산단 재생사업 △세라믹 3D프린팅 FARM기반 상용화기술 실증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아일랜드 라운지 건립사업 △목포 재활용선별센터 확충·현대화사업 △원도심 루미나리에 상가거리 경관개선 사업 △몽탄 정수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 등이다.

시는 중앙부처와 전남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26년 국고 사업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부처 예산 편성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국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진도군, 계약심사 운영...예산절감 민선 8기부터 총 34억6000만원

진도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진행해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대해 사업 발주와 설계변경 전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적절성 등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사전검토·심사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 들어 총 3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 한 해 동안 총 156건, 656억1000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120건, 용역·물품 36건을 진행해 총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2025년에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지역인재 '영암스타 50인' 모집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위한 '2025년 영암스타 50인'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참여 인재를 모집한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스타 50인은 2023-2026년 4년 동안 학업·예술·체육 등 분야의 지역인재 50명을 발굴해 재능계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암스타 1인에게는 각각 재능계발비로 1년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미래교육재단은 2024년까지 총 22명의 영암스타들을 발굴·지원했고, 이번에 14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영암스타에는 학업·예술·체육·기능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둔 영암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 영암스타 50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완도군 관계자가 바다에 이식할 청해삼 종자를 잠수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해역에 청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잡피 4만 주를 이식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청해삼 방류·잡피 이식 수산자원 조성 온힘

완도군이 지난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청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잡피 4만 주를 이식했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해삼 종자는 신지 월부리를 비롯한 8개 해역(신지 월부, 약산 해동, 청산 상서·지리·읍리·당

리, 생일 덕우도, 생일 용출)에 약 88만 마리가 방류됐다.

방류한 청해삼 종자가 출하될 때까지 무단 조업을 금지하고자 방류 지역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추후 방류 효과 조사 등을 위해 해당 어촌계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협조받았다.

청해삼 종자는 마리당 무게가 1.0g 이상이며 10개월이 지나면 출하 가능한 사이즈로 성장하여 어촌계에서 단기간 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잡피 이식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FIRA)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바다정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안 가학리에서 채취한 잡피 4만 주를 신지면에 지난 9일부터 약 1주일 동안 이식을 진행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25억원 돌파

기찬 이동빨래방 운영 앞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지난 24일 기준 25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억3000만원 넘게 모금해 전국 기초지자체 2위의 실적을 달성한 영암군이 올해도 다양한 지정기부와 기부사업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영암군의 대표 고향사랑기부사업은 지난해 개원해 전국에 알려진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이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년만에 소아청소년과를 열어 광주나 목포로 2시간 이상 걸려 원정 진료를 다니던 부모님

과 아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지난해 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영당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엄니, 영암군장 가시계' 2건의 기부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다.

참여자 97%가 만족도를 보인 영당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총 3개 복지회관에서 103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95% 만족도를 기록한 엄니 영암군장 가시계 사업은 마을 어르신들을 영암읍 영화관까지 버스로 싣고 와 영화를 보여 주는 효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의 관심을 받았다.

내용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 기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영암군은 취약계층에게 2.5톤 세탁차량이 찾아가 빨래해 주는 '기찬 이동빨래방 운영 사업' 시행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와 전국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영암군민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암에 고향사랑기부해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풍성한 답례품 선물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전남도 레전드50+ 참여기업 선정 원광전력㈜

원광전력(주)(대표이사 전연수)은 지난 17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레전드 50+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가 으뜸 전남 실현과 주축 산업을 선도할 대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광전력(주)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화, 컨설팅, 수출지원 등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남은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 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제품의 3개 산업을 주축으로 그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원광전력(주)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도서지역에서 디젤발전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ESS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내 10여 개 이상의 소형도서 자가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하여 자동화 운전을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한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광전력(주)은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2024년 자가발전도서 내 디젤발전 연계형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2025년 디지털 컨트롤러 개발, 2026년 그리드 포밍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가발전도서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스템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연수 대표는 "원광전력(주)은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계기로 도서지역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기술을 한 단계 높여 전남의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